

북한개발소식

06

2019 June

통권 164호

| 이달의 주제 |

다음 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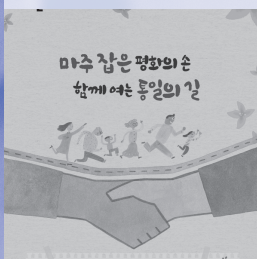
월간

북한개발소식 2019 June

CONTENTS

이달의 주제 :

다음 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교회의 통일 교육과 다음 세대 양육



01

권두칼럼
다음 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교회의 통일 교육과
다음 세대 양육



08

칼럼 1· 배민수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통일세대 일으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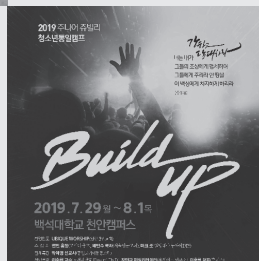
15

칼럼 2· 이성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꿈과 비전을
가꾸는 사람
미래소망스쿨 이야기



20

칼럼 3· 백형열
다음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준비하자
4차 산업시대 통일 세대 준비



24

탈북민 수기·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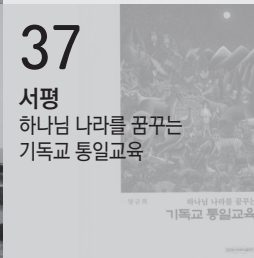
30

북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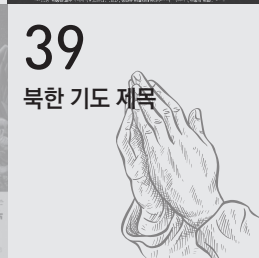
37

서평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통일교육



39

북한 기도 제목



다음 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교회의 통일 교육과 다음 세대 양육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최근 북한 이슈가 연일 화제로 떠오르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그 관심은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등 정치, 군사적인 면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도 서서히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이면에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안에 있으며 통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것이다. 비록 아직은 작은 불씨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통일의 그 날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통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이지만 실제로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세대는 현 기성세대보다는 지금 자라나는 다음세대일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이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보도를 통해 알려져왔다. 이러한 실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기 위한 통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3만이 넘는 탈북민의 유입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남과 북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통일 교육의 필요성은 특정 단체나 기관에서만 이야기하는 점이 아니다. 이미 공교육 과정 중에 통일 관련 교과 수업이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시간이나 내용이 충분한지 여부를 떠나서 통일 교육이 학습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 통일 교육에 대한 주된 논의는 교회 내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무관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가 컸다. 그렇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통일이 자주 이야기되고, 공교육 과정을 통해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이 사회와 무엇이 다른지, 교회만의 교육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회에서 나눠져야 할 통일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세대의 양육에 대해서 고민해보며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교회 밖 통일 교육과 청소년들의 통일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수업이 초, 중, 고 학교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통일교육원이 전국 200명 이상 재학중인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통일 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79.9%)은 교과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

이러한 교육의 결과일까?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긍정적이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13.7%)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일 후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55%, 통일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3.1%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결과 중 흥미로운 점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답변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24.6%),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1.6%),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21.2%) 순이었다. 이전 결과를 살펴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어왔다. 2009년에는 24%대였지만 2017년에는 14.7%로 하락했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서는 21.6%로 상당히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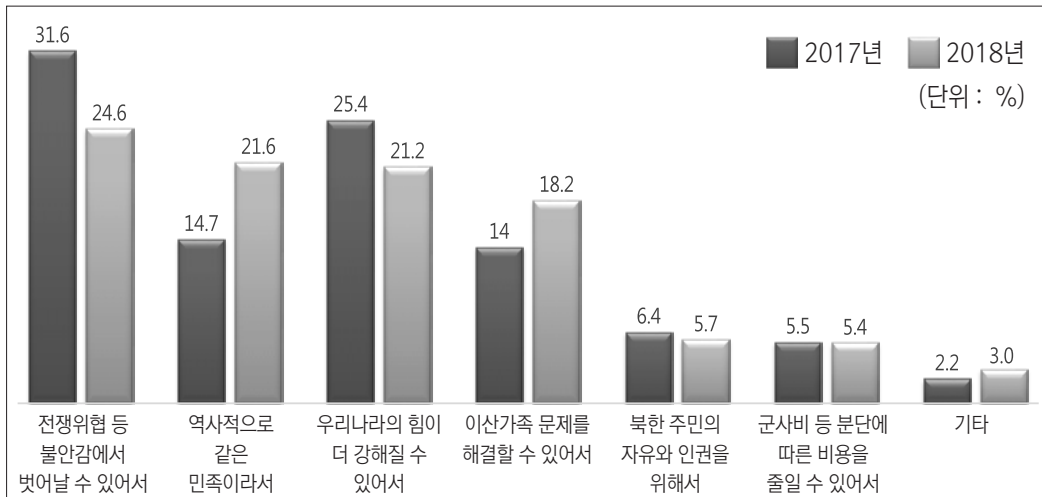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는 최근 학생들의 의

식변화도 보여준다.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을 보면 18년 조사에서는 협력하거나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답변이 63%, 경계하거나 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33.4%였다. 반면 17년도 조사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41%였다. 부정적 답변이 1년 사이에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17년에는 독재/인물(49.3%), 전쟁/군사(24.5%), 한민족/통일(8.6%) 순으로 나타났으나 18년에는 전쟁/군사(29.7%), 독재/인물(26.7%), 한민족/통일(24.9%)로 비율적으로 한민족과 통일에 대한 수치가 크게 상승했다. 앞서 통일의 이유에도 한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수치가 1년 사



〈통일부와 교육부가 주최하는 통일교육주간에는 강의식 교육과 지역 통일체험 행사 참여 등 프로그램이 열린다.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에 진행한 통일교육주간은 그동안 권장사항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교육주간이 됐다.〉

1 통일교육원, “2018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교육원, 2019)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답변 (학생 통일교육 실태조사 17년과 18년 결과 비교)〉

이에 6%가량 상승한 것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근래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때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관이 자신들이 듣고 보는 뉴스나 최근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학생들의 통일 인식의 부족보다는 그 내용에 있다. 변종현 제주대 교수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논문²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수준도 낮지 않으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 담론, 즉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최근(18년) 결과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낮은 수치를 보였고, 개인의 삶과 통일의 관련성 부분에서는 인식이 약화되었다고 보

았다.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학생 개인에게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삶과 통일의 관련성 부분에서는 서울대학교의 통일의식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 편익이나 통일 효과를 개인 보다는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즉 통일이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이익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청소년 통일교육 실태는 교회의 통일 교육에도 숙제와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 통일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식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어느정도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에 현실적 접근을 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2 변종현, “남북한 통일의 도전과 청소년의 통일의식” 윤리연구 제 117호

즉 한반도 평화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측면과 함께 그러면서 통일이 개인의 삶에는 별 이익이 없거나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이전 세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민족주의적 의식 등 감성적인 접근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접근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향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인 통일 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민족의식 고취를 통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남한 사회와 모순적인 측면이 있으며, 여전히 통일은 선택적 과제라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통일의 목표도 단순히 개인의 노력을 통한 통일 준비에 그치고 있으며 공동체적 접근이 부재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교회는 사회에서 제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라는 교회만의 가치가 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과나 평화로운 삶을 위해라는 사회적 유익 이상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교회의 통일 교육의 특별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나눠야 할 통일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통일관을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르치는 입장인 교회 내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자신들이 듣고 보는 정보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

렇다면 교회의 통일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야 할 기성세대들의 통일 인식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만족스러운 답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신대 서영준 교수³는 많은 교회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단순한 원한과 적대 감정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통일을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만 인식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하거나 교회를 통일 문제와는 별개로 인식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교회의 무관심을 심각한 문제라고 서영준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통일 문제를 단순히 통일된 후에 북에 교회를 세우는 것 정도로만 보고 실제로 교회 교육 간에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기존 교회의 인식과 수준이 이러하다면, 학생들에게 성경적 관점에서의 통일관을 전달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오랜 기억에 의존하는 성인들에 비해 최근의 북한과 통일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교회는 기존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무엇이 성경적인 통일관인지를 고민하고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유은정, 정희정 교수⁴는 기독교적 통일 교육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독교적 통일 교

3 서영준, 2014. “분단을 넘어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개혁논총 29권.

4 유은정, 정희정, 2012. “기독교 유아통일교육의 방향성 모색”. 한국보훈논총 제 11권 2호.

육은 통일의 당위를 민족주의를 넘어 민족과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며, 통일의 목표가 단순한 통일 대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님의 충만의 사역이 온전히 증거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교회의 역할과 역량을 일깨우고 더욱 강화하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적 통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기독교 세계관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이데올로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념적 관점을 넘어서 성경적 시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의 이해의 증진도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지식을 넘어 남과 북의 생활상과 사고방식,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북한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체제의 통일을 넘어서 사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와 문화,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상처와 민족적 비극이 만들어 낸 민족적, 공동체적, 개인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치유와 회복의 교육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실때 아픔을 치유하시며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교회가 통일 시대 치유와 회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지식적인 교육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하는 나눔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동정이나 우월감이 아닌 하나님 안에 동등

한 형제 자매로서 바른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통일 교육은 하나님의 나라와 살롬을 이야기해야 한다. 화평의 하나님, 화평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현재 분단 상황에 적용하여 전쟁과 폭력이 멈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과 북 사이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과 살롬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는 기독교적 통일 교육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특별히 북한 체제는 공통의 적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 김도일 교수⁵는 북한의 도덕 교과서 분석을 통해 북한 도덕 교육의 특징 중 하나로 외세에 대한 적대감과 배타주의의 고취를 들었다. 어릴 때부터 ‘미제 승냥이’와 ‘악덕 지주’로 대표되는 증오의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상적 결단을 촉구하고 충성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증오의 정신에 대한 반대정신으로 성경적인 평화와 살롬의 정신은 통일 교육의 근본 가치가 되어야 한다.

탈북청소년 기독교대안교육의 교훈

앞서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의 통일 교육이 담아야 할 주제와 가치들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북한과 통일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부터 평화와 나눔까지 청소년의 정체성과 인성, 영성교육과도 연결되어있는 광범위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정확

5 김도일. 2013. “남북한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모색을 위한 연구”. 장신논단 45집 1호.

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측면이 다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광범위한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일선 교회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목하게된 사례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이다. 통일의 세대는 현재 남한에 있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북한의 청소년들도 포함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바로 지금 통일을 살아내고 있는, 앞서 온 통일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일반 학교로 진학하기도 하지만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복음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독교대안학교의 탈북청소년 교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성훈 교수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12명과 심층 면접을 통해 기독교적인 탈북청소년 교육현장을 조사하였다⁶. 대안학교 교사들은 탈북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었다. 탈북 청소년이 탈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했던 교육의 결손 및 가정 기능의 손실 및 누수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족, 또 북한에서 경험했던 국가에 대한 불신 및 교육제도 붕괴로 인한 개인주의 조장에 따른 인성교육의 부재 등을 이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무례한 행동 등에도 내면의 상처와 또 그들이 가진 선한 본성에 주목함으로써 교사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과 관심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교육의 바탕으로 삼는 신앙적 가치를 꼽을 수 있다. 그간의 교육 경험을 통해 기독교대안학교의 신앙 교육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탈북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치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윤리, 즉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섬기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탈북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의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각 학생들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고, 아픔을 겪은 자로서 아픔을 겪는 자를 돕는 자로, 남과 북의 분단을 넘어 통일의 일꾼으로의 소명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에 대한 자각이 실제로 학업 관련 부분에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또 실생활에서 삶의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성경암송이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독교대안학교인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응답한 한 교사의 이야기는 대안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주는 대목이다.

6 최성훈, “교사의 다문화 역량과 탈북 청소년 대상 기독교대안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 47집(2016년 9월).

탈북 청소년 교육 사례는 각 교회의 통일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이미 통일의 과정과 필요를 피부적으로 느끼는 학생들에게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교회의 통일 교육도 순서는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통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그 단독으로도 중요한 교육의 과제이지만, 그저 많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관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기존 학교나 사회의 사례에서 보듯 지식의 축적만으로는 청소년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그보다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통일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샘솟는 사랑이 자기를 넘어 공동체와 이웃으로 확장되고, 그 과정에서 통일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며 새로운 지경임을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복음적인 통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통일의 세대를 꿈꾸며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통일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오랜 기다림의 끝이요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한다면 교회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통일 문제를 바라보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큰 직무유기이다.

젊은 세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아이들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은 채, 꿈을 잃고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지만 교회는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해오지 못했다. 교회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를 기회와 축복으로 삼기 위해서는 일선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아이들이 근시안적인 시야로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통일의 시대를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경으로 받아드리는 비전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통일세대 일으키기

배 민 수 (서울영동교회 부목사, 사단법인 여명 및 통일소망선교회 이사)

뜻밖의 부르심

쾅! 쾅! 쾅!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숨겨주세요!”

자던 중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달려갔다. 다급하지만 또렷한 영락없는 남자 아이의 목소리였다.

“지금 잡히면 전 죽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잡히면 죽는다는 말에 일단 구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아이를 안으로 들였다.

“학생,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전쟁이 났어요. 인민군이 쳐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탈북민이거든요. 저를 찾아와서 죽이려해요.”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야 이 중간나 변절자 새끼 어디있어?” “빨리 문 열라우!”

자던 중 갑자기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어리둥절 공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탕!” “탕!” 울리는 총성에 정신이 번쩍 뜨였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창밖으로 아이를 다시 내보내고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지도 못하고 어느새 목덜미가 뜨끔한 느

낌이 들면서 통제력을 잃은 몸이 쓰러졌다. 누운 채로 도망가는 아이를 응시하는데 저만치 뛰어 가던 그 아이도 곧 넘어졌다. 그리고 어느새 군인처럼 보이는 사내들이 덮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의식을 잃었다.

마치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실제 들어간 것처럼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2015년 5월 어느날 이 꿈을 꾸 후 바로 이튿날 담임목사님의 연락을 받았다.

“배목사, 혹시 여명학교라고 아는가?”

“네, 목사님. 탈북한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학교 교감선생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럼 부탁하나 하지.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라서 그 학교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는데, 난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는게 좀 부담스럽네. 배목사가 청소년 전문가나 나 대신 가서 설교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목사님,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인데 맡겨주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난 직후 전전날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살려달라는 절규에도 그저 무기력하게 지

커만 봐야했던 탈북청소년, 그리고 탈북청소년 학교로의 설교 요청. 뭔가 심상치 않은 부르심에 약간의 부담감과 기대가 교차하며 설교하러 갈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탈북청소년들과 첫만남

여명학교는 약 100여명의 탈북청소년들이 모인 대한민국 최초의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로 교육부의 고등학교 과정 인가를 받아 통일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탈북민 학교이다. 남산타워 케이블카 타는 곳 아랫길 유명한 돈까스 집들이 즐비한 음식점 거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1층 예배실로 안내를 받고 들어갔는데, 예상했던 100명이 아닌 약 6-7명의 찬양팀 학생들과 몇 명의 학생 및 교사로 보이는 청년들과 성인들까지 약 30여명이 모여있었다. 알고보니 학생들만의 예배가 아닌 학교 후원자들의 기도회였다. 어쨌든 여러명의 십대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눈높이에서 신나게 말씀을 전하고 마음껏 축복한 후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잠깐이나마 인사를 나누었던 학생들과의 대화, 찬양할 때 그들의 순수한 표정, 설교를 들으며 적극 반응하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다. 아내와 그날 있었던 만남들을 복기하며 북한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놀랍게도 우리 부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 둘 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선교단체 특강 등의 시간을 통해 ‘북한선교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름 돋을



〈서울 남산 자락에 자리잡은 여명학교는 2004년 개교하여 지금까지 약 240여명(17년 기준)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이다.〉

정도로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소명을 이제야 깨닫게 하신 이유에 대해 궁금해졌다.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기로 했다. 마침 섬기던 교회에서 매달 모여왔던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이하 복기모)에 가기로 마음을 모았다.

복기모에 참석하니 북한선교부(현, 통일선교부)에 소속된 기도회 멤버들이 10여년 전부터 평신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해왔었고, 설교자로서가 아닌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순수하게 참여한 교역자는 처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성도들이 ‘교역자가 와서 함께 북한선교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도했었는데 그 응답으로 우리 부부가 왔다고 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부부가 잊고 있었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복기모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다. 복기모 성도들의 환대 속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찬양인도를 맡고, 아내는 반주를 하며 매달 복기모를 섬겼다. 곧 얼마 안되어 북한선교부에서 주관하는 ‘통일준비학교’ 과정에 아내와 같이 등록하여 강

의를 듣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갔고, 여명학교에서 만났던 탈북민 청소년들에 대한 묘한 그리움이 이어졌다.

여명학교 교목 사역

그 당시 교회에서 장신대 교육대학원(교직 과정 포함) 공부를 장학 지원해주셔서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마지막 한 학기 과정과 교생실습을 앞두고 있었다. 교생실습은 미리 실습현장이 될 학교와 미래 협의를 해 두어야 했다. 어떤 곳으로 갈까 고민하던 중 여명학교가 고등학교 정부 인가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시나 교생실습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여명학교에 설교하러 갔을 때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명함이 생각나 그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니 바로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시기에 용기를 내어 ‘여명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학교측에서 교사회의 후 회신이 왔는데, ‘학교 인력여건 상 교생을 지도할 만한 교사가 부족하고, 앉아 있을 책상조차 여력이 없어 미안하지만 교생 실습은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새학기부터 매주 학생들 예배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오히려 부탁을 해왔다. 그리고 교생실습 대신 신앙을 가르치는 시간인 ‘종교와윤리 과목 두 반, 그리고 신설될 오후 찬양 동아리반을 맡아주길’ 요청했다. 아무 연고 없던 목사에게 맡겨진 너무나 파격적인 섬김의 기회였다.

하지만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당시에 맡고 있던 목요일 주중 부서와 시간이 겹쳐서 여명학교 봉사는 힘든 상황이었다.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예배와 수업 일정을 나에게 맞추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다. 이렇게까지 학교에서 요청하는데 거절해선 안되는 ‘주의 부르심이 있구나’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교회에 여명학교 교목지원사역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사역자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것을 담임목사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허락받은 후 당회를 통해 ‘주중 하루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에서의 교목 지원사역’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전혀 뜻하지 않게 매주 금요일 하루를 온 종일 여명학교에서 교목 지원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만난 청소년들

2016년 3월 첫주, 새학기가 시작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설교를 하러 갔다. 대부분 처음 만난 학생들이었음에도 좋게 반응해주어 신나게 말씀을 전했다. 예배 직후 한 남학생이 찾아왔다. “목사님, 혹시 이번주에 목사님 교회에 한 번 가봐도 되요?” 여명학교 사역은 이렇게 첫 주부터 한 영혼의 열매를 통해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교회로 출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제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설교만 할 때는 몰랐던 그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영동교회로 부임한 이후 청소년부서를 맡아 주로 강남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왔다. 이들은 강남 특유의 심한 경쟁주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왕따 등 또래의 관계 문제를 겪으며 나름의 상처와 좌절 속에 힘든 사춘기 시기를 보낸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나 대기업 등을 다니는 엘리트 부모 아래 큰 모자



〈배민수 목사(왼쪽 3번째)와 여명학교 찬양동아리반 학생들〉

람 없이 풍요를 누리며 살아온 아이들이다. 신앙 생활을 착실히 하는 엘리트 부모 덕에 학업 스트레스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가정적 위기를 별로 겪어 본 적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명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은 그동안 만나왔던 남한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보통 탈북청소년이라고 할 때 가족, 혹은 혼자서 국경을 넘어가서 브로커, 혹은 민간 구출기관(선교단체, 교회 포함) 등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친구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해체, 혹은 가정불화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가족 없이 혼자서 온 무연고 친구들도 있다. 온 가족이 다같이 들어온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북에 가족을 두고 오거나, 혹은 어떤 일로 헤어져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많다. 그러다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게 되면 그들의 생계 지원 송금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 여자 학생들의 경우 중국으로의 탈북과정에서 나쁜 브로커를 만나는 경우가 잦는데, 이때 인신매매, 강제결혼, 매춘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중국계 청소년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간 탈북민 여성들을 통해 태어난 친구들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라면 이들은 북한측에서 볼 때 교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하는 북한 출신들 여성들이다. 따라서 언제 공안에 잡혀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강제북송의 공포에 늘 시달리다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범죄단체에 팔려가거나 현지 남성과의 강제결혼 등을 하게 되면서 말도 못할 인권유린의 희생양이 된다. 원하지 않던 삶을 고통스럽게 살면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신분상의 불안함에 시달리다가 운 좋게 탈출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동남아 등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을 밟는다. 중국에서 상당수의 여성들이 원하지 않은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나이의 경우 한국에 들어오면서 소식이 끊어지기도 하나, 남한 정착 후 여건이 되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도 한다. 최근 탈북민 학생들 중 이러한 제3국, 즉 중국 출생 학생들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여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극심한 정체성 혼란의 위기를 겪게 된다. 또 엄마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가정이 해체되는 것에서 오는 상처가 깊고, 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강하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아온 보통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기 힘든 특수한 경험과 아픔을 가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은 크나큰 도전이었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명 학교 학생들〉

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릴적부터 깨어진 가정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기에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학생들은 자신들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여러 고통을 겪으며 자라온 나의 스토리를 듣고 더 빨리 마음을 열어 주었다. 예전에는 큰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상처 많은 십대 시절의 경험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탈북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큰 자산이 된 것 같아 이제는 정말 감사하다.

영동기숙사(살롬하우스) 설립 이야기

여명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난 첫 해 동안 가장 가슴아팠던 일은 가르치던 한 학생이 가정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한 아이는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왔는데, 엄마가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중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야 하지만 낯선 남자가 있는 집이 편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저녁마다 공원, 지하철 등을 배회하다가 밤늦게 들어가곤 했다. 학교에선 기숙사가 서울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정원의 절반 정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정적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여 돌보고 싶고, 입학원하는 학생들을 더 받고 싶으나 기숙사 여력이 없어 학생들을 못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결국 이 학생은 마음 편히 지낼 곳이 없어 결국 방황하다가 가출을 한 것이다.

현장에서 이러한 필요들을 발견하고 일 년 간

의 여명학교 교목지원 사역을 보고하는 교회 제직회에서 ‘교회를 통한 기숙사 설립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도를 요청했다. 많은 재정과 집중적인 헌신이 필요한 일이라 당장 시작할 생각은 아니었다.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길을 여시겠지’하는 마음이었다. 예산에도 없던 일이라 준비를 한 다 해도 최소 1년은 더 걸릴 상황이었다. 그런데 교인들 중 몇몇 분들이 제직회 보고에서 도전을 받고 기도하던 중에 지정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던 학생들 돌보는 일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헌금했는데 혹시 알고계세요?” 거액의 지정헌금을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빨리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선교부장을 찾아갔다. “집사님, 지정헌금 들어오는 것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쁘신 듯합니다. 모든 것은 주께 맡기고 한 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설득하여 기숙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10여년 전 북한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통일적립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선교적립금을 더하면 무리하게 큰 재정을 만들 필요도 없이 공간을 임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신논현역 근처의 30평 빌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계획을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해주었고, 제직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동의해주어 기도 요청을 한 지 3개월만에 기숙사가 설립되었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병이 날 정도로 이 일

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교우들이 도배, 수리 등 환경정비, 침대, 책상, 가전, 생활용품 등의 물품기부 등을 해주셔서 온 교회의 관심과 사랑 하에 5월초 5명의 여학생들이 살롬하우스(영동기숙사)라는 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내와 나는 주중에 1-2회, 주일엔 저녁마다 방문하여 학생들의 먹는 것부터 신앙 및 상담에 이르기까지 삶을 나누며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통일선교 교육 현장으로서 교회학교

영동기숙사 설립으로 돌보는 사역 외 여명학교에서 예배 설교, 종교수업, 찬양동아리 지도 등의 가르치는 사역과 학교 개강캠프, 찬양예배, 신앙상담, 장학/과외지원, 교회정착지원, 명절초대 등으로 사역의 범위와 영향력이 계속 늘어갔다. 이 때문에 많은 탈북민 학생들, 혹은 제3국 출생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 기숙사 설립 2년이 지나면서 졸업한 친구들이 청년부로 올라가서 이제는 교사로서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제도권 교회로서의 한계가 있어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겉돌다 교회를 떠난 학생도 있다. 하지만 정서적 벽, 문화적 벽을 넘지 못해 탈북민끼리만 어울리던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그 벽을 점점 넘어서서 함께 하고 있다.

3년 전 교회에서 교육부서 총괄을 맡고 있을 때 청소년 통일비전 캠프, 통일비전트립(DMZ 평화기행 등)을 추진하고, 교회학교 전 부서가 통일선교주일에 모든 부서 공과를 평화교육의 주제로 진행하며 교육활동을 하는 등 평화 통일교육의 장을 열게 되었다. 이 전통이 지금도 교회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의 많은 아이들이 실제 북한에 온 학생들과 한 부서에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신앙공동체 속에서 통일을 경험하며 통일세대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웨스트호프는 기존의 ‘학교식-교수 패러다임’에서 ‘신앙공동체-문화화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즉 신앙교육의 자리를 학교 교실로부터 신앙공동체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인간이 문화를 내면화하듯이 공동체 안에서 일종의 문화로서의 신앙을 형성하게 됨을 주목했다. 따라서 의식, 경험, 활동을 강조했다.

공휴일, 혹은 주말과 주일을 활용하여 함께 어울려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그 미래를 경험하고 기대하게끔 돕는 평화기행, 통일교육활동 등의 프로그램들은 다음세대로 하여금 통일세대로의 부르심을 확신케 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통일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근대 한국 교육 정신의 뿌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50만이 채 안되던 때에 민족지도자 33인 중 절반인 16명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정도로 한국교회는 민족 정신의 큰 맥을 형성했다. 정신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지혜,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교육의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깊고 든든한 정신적 토대 없이 주입되는 지식은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대로 “현명한 악마를 길러낼 뿐”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학업이 신



〈통일비전캠프(좌)와 통일선교주일 북한음식체험 행사(우)〉

양보다 우위에 서게 되고, 이로 인해 교회교육 현장에서 섬김을 강조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다음세대가 늘어가고 있다. “통일은 왜 해야 해요?” “통일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 어찌다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인가? 다음 세대는 동일한 가치와 정신을 갖고 이어지는 집단으로 유사성과 공감의식을 갖는다. 반면 다른 세대는 전혀 다른 가치와 정신을 가진 집단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갖는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당위로 여기는 기성세대와 달리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거부감이 점점 커져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다음세대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다른세대(삿2:6-15)가 되어가고 있는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다음세대를 통일세대로 세워가기 위해 해야 할 여러 일들이 있다. 북한이 개방되든, 아니면 지금처럼 분단 상태가 지속되든 상관없이 다음세대를 통일세대로 준비시키는 일은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일이다. ‘나의 성공’, ‘고소득 직장’을 위해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너희가 통일세대의 주역이다’는 비전을 심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 들어온 탈북청소년들을 돌보고 믿음 안에서 잘 돌보아 통일시대의 마중물이 될 일꾼으로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동남아 등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탈북민들의 구출, 양육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

이다. 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다음세대를 만나고 돕는 사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탈북민학교, 그룹홈, 탈북민교회 등과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관심을 가질 때 개 기관들이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각 교단의 노회별, 교회별, 기관별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복지, 상담, 전도/양육 전문가 그룹을 준비시켜야 한다. 완전한 통일의 날이 올 때까지, 탈북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다음세대를 복음사역자, 전문인사역자로서 준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반 교역자들이 교회 현장의 민원(?)목회에만 매달리지 않고 통일을 준비하는 현장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일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역적 환경을 열어줄 수 있는 목회적 배려도 필요하다. ☞

1 비슷한 또래(16~20세)의 나이에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었다가 중국에서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을 당한 십대들을 청소년 부서에서 입양하여 그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들의 구출비용을 모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들의 정착을 위해 도움을 주고, 학업을 시작하도록 학습 멘토로서 돕는 일은 큰 보람과 통일에의 비전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꿈과 비전을 가꾸는 사람 미래소망스쿨 이야기

이 성 희 (미래소망스쿨 교감)

미래소망스쿨은 부모를 따라 탈북 했거나 제 3국에서 태어나 탈북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자녀들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을 갖춘, 미래 통일 한국을 이끌고 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기숙형 방과 후 학교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말도 서툴러 학습능력이 또래의 아이들보다 뒤쳐져서 출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뒤따르는 교직원들과 주변 교회들과 대학교의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헌신의 노력으로 날로 날로 진흙 속의 원석들이 반짝 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로 변하며 자라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우리는 1990년에 갑자기 이루어졌던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으며, 그로부터 정치적 통일보다 사회적 및 정신적 통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배워오고 있다.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통한 통일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해보고자 하며 눈을 감고,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땅이 열려 우리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날을 상상해 본다. 갑자기 열린 북한 땅, 그 날에 예

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길 뜨거운 열정으로 북한 땅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미래소망스쿨에서 자라난 인재들의 활약을 상상해보면 지금도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르겠다. 동독 출신이면서도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된 메르켈 여사 같은 인재도 나오리라 믿는다.

남과 북 양쪽의 사고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미래소망스쿨의 인재들은 통일 한국의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미래소망스쿨은 북녘 땅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거침없이 울려 퍼지는 그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이 귀한 보물들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꿈과 비전을 가꾸는 사람”으로 키워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미래소망스쿨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산실이 되도록 늘 잊지 않고 기도해주시기를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한다.

미래소망스쿨의 교육

미래소망스쿨에서는 ‘가정 - 학교 - 교회’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평화와 화해와 치유의 일꾼들을 길러내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탈북학생은 남한사회 적응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있다. 무엇보다 탈북학생은 제도와 문화가 다른 남한의 학교생활을 갑작스럽게 접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정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장기간 학습공백으로 인한 학습 부적응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탈북학생을 미래소망스쿨에서는 각 학년의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학습 기능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즐겁고 건강한 미래소망스쿨 생활’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탈북학생을 위한 미

래소망스쿨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남한사회와 학교환경에서 즐겁고 자유로운 원만한 생활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돕는데 있다.

미래소망스쿨에서는 우선 기본적인 학교생활 규범을 익히고 바른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며 남북한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데 있다. 남한사회의 바른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을 통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신장시키고 주일 예배 및 분반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학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탈북학생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정하고 그에 기초한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탈북학생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는 한국학생을 위한 학습부진아 보충교재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즉, 교과교육은 단순히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국사회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적응교육의 수단이 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교과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은 이것이 탈북학생의 문화 적응을 돕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었다. 각 교과목의 내용 구성은 ‘적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특송으로 참여한 미래소망스쿨 학생들〉

그리고 미래소망스쿨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은 바로 신앙 교육이다. 탈북학생들이 주일 예배 및 분반공부 등을 통한 참 기독교인성의 함양과 학생 수준별 전문 맞춤형 교육으로 탈북학생이 학교생활 적응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탈북학생 및 교사용 과목별 표준교재 검토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독서활동을 통한 창의력 및 휴머니즘 인성함양과 정서적 안정과 특성 및 적성을 개발하는 상담, 잠재력을 살리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탈북학생의 일반학교 적응을 위한 일반학생과의 어울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양방향의사소통 및 생활문화 중심의 교육을 내실화 하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통한 바른 인성·심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함으로써 탈북학생의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미래소망스쿨에서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디가 자라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성경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생들이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래소망스쿨에서는 소망교회 전학년 부에서 진행하는 여름과 겨울 연간 2회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학교 성탄발표 및 6.25 통일선교주간 2~3부 예배에서 특송을 부르면서 많은 학생들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탈북청소년과 신앙교육

미래소망스쿨 재학생 중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학생들인 경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기독교에 대한 공포감이 많았으며 학부모님들 역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어려운 과제로 나섰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소망스쿨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놓고 가정 방문을 통한 학부모 상담과 학생들의 상담 및 주일 예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먹고 사는 데 바쁘다보니 교회는 말을 들었어도 나가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나를 대할 때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감기로 몸살로 많이 아팠어요. 옆에 와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주일이면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기도제목을 적어서 아이와 함께 나누며 기도도 하고, 매

일 아침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미래소망스쿨, 초4학년 탈북학생 학부모, 상담 내용. 2016. 03)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말도,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도 모두 거짓처럼 들렸어요.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하지만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웠기에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정한 죄인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기가 더욱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제야 마음에 와 닿을까요? 북한은 왜 이러한 진실하신 사랑을 왜곡 하여 가르쳐 줄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미래소망스쿨, 초4학년 탈북학생 학부모, 상담 내용. 2018.07)

학업을 지도할 때에도 가정 방문을 통한 학부모 상담 및 전체학부모 상담. 졸업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에 기초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학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등의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매주 1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한편 매일 저녁 큐티 공부를 하고 있다. 현재 미래소망스쿨에서는 소망교회 전학년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겨울수련회 및 여름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또래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15년부터 시작을 하여 전학년부 및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있는 곳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미래소망스쿨, 초5학년 탈북학생 상담 내용, 2019.03.02.)




〈19년 겨울 수련회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의 교육

이외에도 미래소망스쿨에서는 교육부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를 하여 물질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탈북학생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부모들 역시 자녀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진리 등을 닮았다는 의미를 알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이처럼 높여 설명하는 책은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고 있다. 그렇게 커진 탈북학생들이 영적 자녀로 인해 세계와 나라와 교회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주체사상이라는 틀 안에서 용인되고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가 아닌 유물론과 무신론적인 사상 교육만을 받아왔다. 또한 조국의 어머니라는 구호 아래, 북한의 여성들을 가정과 직장, 특히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책임감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1903년, 원산에서 캐나다의 하디 선교사가 진정으로 조선인과 조선을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되었던 원산부흥은 평양으로 번져 1907년 거대한 평양대부흥의 불길로 타올랐다. 이 때 평양은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물결로 넘쳐났지만, 1948년 9월

9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원산항으로 김성주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김일성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었으며 그 후 10년 후인 1958년 9월 9일 북한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미래소망스쿨은 2014년 4월 7일, 탈북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기숙형 학교를 개원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미래소망스쿨의 학생들은 나의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고, 나의 어머니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적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법,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침식될 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게 될 탈북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소망스쿨 운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고통의 세월을 보내더라도 그 속에서 터득한 모든 경험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의 인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며, 이러한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음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준비하자 4차 산업시대 통일 세대 준비

백 형 열 (RGnet 대표, SQ 전문강사)

현재 한국교회 다음세대들은 빠르게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

2013년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이 '한국 교회 미래지도'(생명의 말씀사)라는 한국교회 미래학 보고서를 냈다. 최소장은 2020년까지 한국교회는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그 증상이 각 교회에서 벌써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현 교회 안의 다음세대 성장률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통일과 통일 세대를

준비하자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교회 다음세대 담당자들이 말하는 현실은 "통일 준비는 고사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오더라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아이들이 대다수다."라고 이야기한다.

학창시절 교회에 오더라도 학생부 졸업과 함께 교회를 졸업하는 청소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영성 시대를 준비하자.

이러한 상황 속에 다음세대와 통일 두 마리 토

2050년이면 영성시대 '활짝'

이코노믹리뷰 | 김세형 | 입력2011,01,04, 09:25

세계미래학회는 영성이 이성과 지식의 다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 글로벌 지식사회와 글로벌 시민사회로 변하고, 2050년부터 영성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존 나이츠비츠는 "영성은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성함을 경험하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려는 욕구의 전부다"라고 말했다. 또 워싱턴대학 윌리엄 하랄교수는 "2020년 정보시대가 끝나고 지식 이상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성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끼를 다 잡는 계획이 필요하다.

“2050년이면 영성시대가 ‘활짝’” 이 제목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장래의 일을 미리 알려고 시도하는 미래 학자들의 입과 글에서 나온 이야기다.

세계 미래 학회에서는 2030년이 되면 글로벌 지식사회와 시민사회로 변하고 2050년부터는 영성시대가 활짝 열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 영성은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성함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려는 욕구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워싱턴대학교 윌리엄 하랄교수는 그보다 앞선 “2020년이면 정보시대가 끝나고 지식 이상의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성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2030년 공교육이 사라지고 4차 산업혁명과 기계문명 발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답이 있다.

“움직이는 영성이 답이다.” - 시대의 필요를 인식하라.

영성을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영성을 준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있느냐?”라고 말을 한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전하는 말보다 세상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신앙인들은 ‘한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 신앙과 사회를 균형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세대를 상대하는 사역자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원칙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꼰대’가 된다. 꼰대가 아닌 아재, 아재가 아닌 ‘ 쌤~’이나 친근한 호칭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아이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성경을 펼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세상은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올해 들어서 4차 산업시대에 대한 대안들, 사역의 방안이 나오는 것 같다. 우리 통일세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4차 산업시대이다. 통일준비도 4차 산업과 맞게 준비해야 한다.

카이스트대 이민화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을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고 정리했다. 통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미래에 특정할 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날’이다. 북한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한 남과 북의 하나됨이다. 그 날을 준비하며 다음세대들이 뛰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과감하게 우리 기독교 전문인들이 통일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마냥 기다리기 보다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와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확실한 대답을 세상의 언어로 나누고 전하는 것이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

필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교육기부 사업에 기부자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기부란 기업 •



〈학교에서 진행되는 재능기부 활동 프로그램에 '4차산업 시대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 필자 외 수강 학생들의 모습〉

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는 학생 동아리 모임과 연결되어 통일과 영성에 대해 나누고 소통하고 있다. 공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기에 직접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을 만나서 생각을 듣고, 소통하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다. 필자가 속한 기관에서도 각종 자격증 취득 등 교육기부자로서 기초적인 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활동 프로그램 진행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과정을 잘 구성해야 한다. 아이들이 직접 조사, 연구할 주제이면 좋다. 처음부터 모든 학생이 다 참석하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후 좋은 점들이 알려지면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전체 아이들에게 실시하면 될 것이다.

필자는 '4차산업시대 통일준비'라는 이름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1) 아이들에게 협동심을 기르며, 2) 팀별 활동으로 주제를 이야기하고 모아서 하나의 주

제로 만들어야 하기에 의사소통 능력, 3).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통일 이후의 모습을 그려야 하기에 상상력, 창의력을 4) 팀을 지도하기에 리더십 능력을 5) 서로의 의견을 듣기에 청청 능력과 6).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활동 프로그램 중 실내 활동만이 아니라. 통일과 관련, 북한과 관련, 전쟁과 관련된 국·내외 현장 탐방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교회 안에서의 노력

지금까지 교회 밖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다가올 시대를 이끌 리더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할 것이다. 특별히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안을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1. 매 주일 청소년 예배 모임 때 대표 기도자가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한 가지라도 넣어 하기.
2. 학생 기도회 시간에 북한, 탈북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고 기도하기 (각 북한선교, 통일선교 전문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할 수 있음)
3. 월 1회, 혹은 분기별 1회 혹은 특정 달(3월, 6월, 8월 등)에 통일선교 예배 드리기 (설교, 기도 모든 것을 2500만 북한 주민과 32000명의 탈북자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하기. 이때 드려진 헌금은 통일선교 단체나 탈북 청소년 단체에 후원을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4. 통일 캠프 (1박2일, 2박3일등) 실시 ('손에 잡히는 통일선교 캠프'(포옌박스) 등 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3)

마리아

배급이 끊어진 상황에 어느정도 적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법을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배워가기는 했지만 새롭게 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큰 과제였다. 역시나 충분하지 못한 식량과 영양 사정이 문제였다. 아이들이 젖을 때면 이유식을 먹여야 하는데 원래는 당연히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질게 지은 쌀밥 같은 것을 먹여야 할 일이었지만 쌀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옥수수를 이용해서 밥을 지었는데 옥수수가 워낙 딱딱하다보니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아이가 소화하기에는 버거웠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먹은 옥수수가 하나도 소화가 되지 않고 변으로 나왔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뼈빠져 말라갔다. 특히 작은 아들은 거의 영양실조 걸린 아이같이 갈비 뼈가 아롱아롱하게 드러날 정도로 허약해졌다. 먹을 것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입힐 것도 턱없이 부족했다. 큰 딸과 작은 아들이 연년생이었는데 그래도 성별도 다르니 아들 옷을 새로 입히고 싶었지만 새 옷 새 신발은 꿈도 꾸지 못해서 누나 신발을 물려받았다. 그것도 신길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

우리 가족이 가난하게 배를 굶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

었다. 우리 부부는 아침부터 먹을 것을 구하러, 산 중턱 밭을 일구러 새벽부터 길을 나섰다. 남아있는 아이들은 돌보는 사람도 없이 그냥 동네에서 놀다가 집에 해놓은 밥을 먹으면서 우리를 기다렸다. 문제는 아이들 먹일 밥도 챙기기가 버거웠다는 것이다. 식량이라고는 약간의 옥수수 섞인 쌀뿐이었고, 그 양도 턱없이 부족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에 마침 두부를 만들기 위해 갈아내고 남은 콩의 찌꺼기를 구할 수 있었다. 거기에 옥수수 섞은 쌀을 조금 넣어 양을 뺏튀기 해서 밥을 지었다. 색깔이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이 억지로 양을 불린 밥을 쌀밥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먹였다.

물론 그렇게 양을 불리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허기를 채울만한 양은 되지 못했다. 산에 가서 죽도록 일을 하고 아주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 있던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째째대고 난리였다. 나는 “엄마가 조금 있으면 밥해줄게” 하고 아이들을 얼래고 달랜 뒤, 먼저 일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느정도 정리가 마무리되고 뭐라도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볼 요량으로 부엌에 들어가는 사이, 기다리던 아이들은 보통 지쳐서 잠들기 일쑤였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산으로 향해서 밤 늦게까지 산을 파고 나물을 캐고 하는 일이 이어졌다. 정말 아등바등 살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딸아이가 대략 5살 정도 된 때인 듯하다. 우리 집에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친정 오빠가 우리 집으로 왔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며 우리집에 눌러앉았다. 시동생 가족까지 왔다. 시동생은 다른 도시의 군수품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배급이 잘 나오지도 않고 도저히 생활이 안된다고 차라리 고향에 가서 살겠다고 하고 내려왔다. 그리고는 고향에 당장 지낼 곳이 없으니 우리집을 두드린 것이다. 시동생네는 네 가족이 함께 왔다. 졸지에 우리 집 식구 넷에 친정 오빠와 시동생네 식구를 포함해서 아홉 식구가 되었다. 안그래도 좁고 먹을 것도 부족한 우리집에서는 감당하기 너무 많은 인원이었다. 특히 부엌에 앉아서 가마 뚜껑을 책임진 내 어깨가 매우 무거웠다. 당시 장사를 하기 위해 외상으로 받아놓은 돌소금 한 톤과 술 200kg이 있었다. 이걸 일단 팔아다가 장사는 못하고 먼저 생활비로 썼다.

우리 부부는 더욱 고되게 일했다. 남편은 새벽부터 켈 힘들게 산나물 뜯으러 가서 밤 9시나 되어야 돌아왔다. 쌀은 없어서 나물이라도 먹이려는 집념으로 남편이 크게 수고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열의나 노력이 없었다. 시동생은 직장 배정이 되어 출근을 하고, 동서는 간난아이가 둘이라 집에 있었다. 동서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만 나는 아이 키우는 일이 어려울거라 생각해서 동서에게 별 기대는 없었

지만, 내가 일 다녀와서 먹으려고 챙겨놓은 밥을 그렇게 뒤져서 꺼내 먹고 태연하게 행동할 때는 정말 기가 찼다. 배려도 없고 눈치도 없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닌데 왜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친정 오빠도 한심했다. 이혼하고 마음이 기력을 잃었는지 영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줄 아니까 참 안타까웠다.

아홉 식구 밥 해먹는 일은 말 그대로 전쟁이고 전투였다. 얼마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식량 구하러 다니는 일상을 살다 보니 나도 나지만 잘못하면 남편도 식량 챙기다 죽겠다 싶었다. 도저히 감당히 안되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하소연했다. 시동생네라도 시어머니께 맡기려고 사정을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신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시동생네를 주기로 결정했다. 시동생네를 보낼 때도 세간살이를 챙겨서 보냈다. 이래저래 참 고되었다. 시동생네가 가면서 부담은 좀 줄어들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일찍 홀로 되셨지만 아이들을 다 키워내신, 강단 있는 분이였다. 며느리 된 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성미를 맞추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다.

가을이 되었다. 가을은 송이버섯 철이다. 산에서 버섯을 캐서 팔면 식량을 많이 살 수 있다. 송이버섯이 나는 산은 우리 동네에서 꽤 멀어서 남

편은 새벽 2시부터 집을 나섰다. 나는 여느 때와 같이 동네 장터에 장을 보러 갔다. 마침 남편 친구의 아내되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날 따라 아줌마가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했다.

“○○ 엄마, 중국에 돈 벌로 안가겠는가?”

나는 별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다. 그 아줌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설명해주었다. 중국 연길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한달에 300위안 준다는 것이다. 그렇게 석 달만 일하면 자기가 날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아니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고 반문했더니 있다고 했다.

300위안이면 별 것 아닌 액수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 막 고난의 행군을 통과한 때에 중국돈 300위안은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었다. 게다가 전에 장사하겠다고 받아왔던 소금하고 술을 팔아서 모두 생활비로 쓰는 바람에 우리집은 빚이 엄청났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아주머니의 제안을 마다하기란 어려웠다. 시어머니에게 중국 가서 석 달 돈 벌고 오겠다고 조용히 말씀드렸다. 애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나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사실이기는 했지만 가족을 놓고 외지에 나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선뜻 내키는 일도 아니었던 터라 내심 시어머니께서 막으시면 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웬일인지 순순히 허락해주셨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막으셨을테지만 아마 그 당시 동네에 중국에서 돈을 벌어 온 사람들에게 대한 소문이 왕왕 돌곤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 생각하셨거나, 또 우리 집 사정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허락해주신듯 하다. 지금도 만약 그때 시어머니가 막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중국에 가기 위해 준비했다. 먼저 일하러 간 남편에게 뺨곡히 편지 2장을 써서 옷장에 잘 넣어 놓았다. 짐을 싸는데 그날따라 세 살 조금 넘는 아들이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다. 평소 같이 아들을 엉덩이를 때리며 혼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된다. 그 때 왜 그렇게 혼을 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못 볼 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었을텐데...

짐을 싸놓고 평소와 같이 밭에서 시어머니와 가을 배추를 심는데 마침 나를 중국에 데리고 갈 사람이 왔다. 빨리 가자고 준비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어디가?” 하고 물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모할머니네 집에 갔다가 온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들하고 헤어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몇 달이면 갔다올 요량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당연히 마음 아플 것도 없고 빨리 돈 벌어서 빚 갚고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뿐이었다. 시어머니께도 “어머니 저 다녀와요” 하고 나왔다.

우리는 집합장소에 도착했다. 거기에 나 말고도 여자 둘이 있었다. 나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거기에 나에게 처음 중국 일자리를 이야기했던 아줌마와 국경 경비대 군인 한 명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강을 건넜다. 첫 탈출이다. 강을 건너는 일은 아슬아슬했다. 비록 군인 한 명이 우리 일에 끼어 있으니 들킬 염려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강 자체가 물이 깊어서 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까치발을 들면서 어렵게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넜더니 강변에는 다른 브로커가 있었다. 우리를 데리고 온 아줌마는 원래는 식당까지 데려다준다고 했지만 오늘은 일행이 많고 한 차



탈북민 수기

에 타기에는 봄비니까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하고 북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차로 이동했다. 그런데 도로를 따라 가던 이 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우리 모두 내리라고 했다. 앞에 중국 경찰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 내려서 검문소를 피해 밤새 철길 사이로 걸었다. 나는 하필 북한에서 까치신이라고 부르는 뒷굽에 소리가 요란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는 큰일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신발은 손으로 들고 맨발로 걸었다. 발이 너무 아팠지만 잡히면 어쩌하나 하는 걱정이 더 컸다. 밤새 걸으니 해가 뜨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 사람들 눈을 피하기 어려워지자 되자 브로커는 우리를 콩밭에 숨겼다. 그렇게 몸을 숨기고 있는 사이 브로커는 다시 차를 가지고 왔고, 우리를 태워 시내로 들어갔다.

브로커가 데리고 간 곳은 어느 아파트였다. 밤새 정신없이 강을 건너고 길을 걸은 터라 정말 시장했던 우리에게 밥을 주는데 하얀 쌀밥에다가 감자국에 김치를 줬다. 이게 웬 쌀밥인가 하고 우리 세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정신없이 먹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몸을 씻었다. 집에서 입온 북한 옷도 벗고 브로커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한숨 돌리고 나서 한 방에 앉은 우리 세 여자는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25살 먹은 친구는 결혼해서 이제 갓 1살된 아이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언니네 집에 아이를

맡겨 놓고 중국에 시집가서 아주 살려고 나왔다고 했다. 24살 먹은 아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고 중국에서 일해서 돈 벌려고 왔다고 했다. 나도 중국 식당에서 일하러 왔다고 했더니 24살 아이가 나와 같구나 하고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야겠는데 어디서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식당을 소개받고 싶었다. 내친김에 옆방에 자고 있는 브로커를 깨워서 우리 식당 가서 일해야 되는데 구경이라도 갈 수 없는가 하고 물었다. 브로커는 깜짝 놀라더니 우리 모두 다 시집을 가야 된다고 했다.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냐 시집은 무슨 시집이냐 했더니 자기는 이미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뿔싸... 나에게 일 자리를 소개시켜준다면 아줌마가 바로 인신매매꾼이었던 것이다. 이야기하는 품세를 보니 또다시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졌다. 시집 가는 줄로 알고 나온 친구야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브로커를 따라가고, 일하러 나온 우리는 다시 북조선에 가자고 했다. 다시 돌아갈 계획도 짰다. 스스로 안전부에 가서 고발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계획을 짜다가 밤새 걷고 중국에 왔다는 긴장감에 너무 피곤해서 일단 한숨 자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다.

몇 시나 되었을까? 아직 밤이 어두운데 브로커의 아내가 우리를 깨웠다. 왜 깨우냐 했더니 지금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따라오라고만 했다. 우리는 북한에 다시 갈까라고 했더니 그 브로커의 아내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 무릎 꿇어! 너희들 경찰 맛 좀 봐야 되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강하게 나



오니까 우리도 괜히 겁을 먹고 하라는 대로 무릎을 꿇었다. 브로커의 아내는 경찰이 오면 너희들은 잡혀가서 혼쭐이 날 거라며 한번 당해보겠냐며 일장 연설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브로커와 아내도 경찰을 만나면 매우 곤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중국 물정에 너무 어두웠던지라 그런 사실을 몰랐다. 호통에 겁을 먹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차에 태우고는 한동안 이동했다. 그러더니 우리를 모두 내리게 해서 다른 차를 타게 했다. 한쪽 기사가 모는 차였다. 브로커가 다른 브로커에게로 우리를 넘겼던 것이다. 그 차를 타고 꼬박 하루를 이동을 했다. 너무 차를 오래 타서 기진맥진할 즈음에 어느 동네에 도착했다. 새로운 브로커의 아내가 우리를 맞았는데 그 사람도 북한 출신 사람이었다. 우리는 말이 통할 것 같아서 그 여자에게 우리를 시집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도착해서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뽀뽀했다고 나를 불러냈다. 인사할 세도 없이 나와서 보니 남자들이 많이 와있었다. 이미 팔린 것이다. 그들에게 이끌려 다시 또 한참을 차를 타고 이동했다. 도착해보니 어느 산골의 광산 마을이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계속 눈물이 나왔다. 내가 너무 우니까 한 남자가 중국말로 나에게 무어라 말을 걸었다. 그렇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내가 중국말을 못하는 줄 알고 그 때부터 손짓 발짓이 동원되었다. 그간 급박하고 고된 일정으로 워낙 지쳐있던 나에게 그 사람이 손시늉으로 자라고 했다. 마음 상태는 엉망이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나 지

났을까 누군가 날 깨워서 일어나 보니 동네사람들이 집 앞에 모두 모여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북한여자라고 동물원의 동물 보듯이 구경하러 온 것이다. 나는 대화가 안되니까 무슨 일인지도 몰랐다. 그 다음날에는 잔치를 치르는데 나는 주는 밥을 먹고 방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잔치 마치고 남편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40대 중반의 지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였다. 처음에는 중국말을 모르다보니 그 사실도 몰랐다. 한 열흘 지나니까 행동이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때 장애인이구나 하고 알았다. 말도 통하지 않고 정도 없는 이 사람과 시골 강촌에서 강제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고향에 아들딸이 있지 않은가? 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다.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고 맘을 먹었지만 동네가 얼마나 외진지 도통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를 시작으로 그 동네에는 북한여자가 한 명씩 순차적으로 팔려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 숫자가 8명이나 되었다. 팔려온 북한 여성 중에는 17살밖에 안되는 아이도 있었다. 그렇게 팔려온 우리 북한 여성은 21세기 성노예나 마찬가지였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팔려가서 강제로 성생활을 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나를 산 남자는 지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인성이 못되어서 그랬는지 살가운 대화나 인정은 찾아볼 수 없고 평소에는 바보처럼 행동하다가 밤에는 그저 성행위만 하려고 했다. 하루는 이 남자의 강압에 너무 괴로워서 내북바람으로 다른

집으로 도망을 쳤다. 나 좀 살려달라... 숨겨달라... 애원을 했지만 따뜻한 인정 대신 돌아온 것은 주먹과 발길질이었다.

집에서는 우리가 도망갈까봐 감시가 항상 있었다.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앞에서도 사람이 지키기까지 했다. 생활 환경도 척박했다. 동네 자체는 철광석 광산이라 못사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문명화되지 못했고 산골에 위치하다 보니 너무 추웠다. 낙이 없는 그 땅에서 그나마 다른 북한 여자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함께 울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꼭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 고향을 그리워했다.

내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아이를 두고 온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덩달아 육체도 쇠약해졌다.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 퇴원해서도 링거를 맞았다. 링거를 꼽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여기서의 삶이 희망이 없고 빠져나갈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에 그냥 죽어야겠다는 충동이 일었다. 나는 맞고 있던 링거병으로 스스로의 머리를 내리쳤다. 머리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자해 소동 이후 감시가 더 심해졌다. 그리고 억눌림이 심할수록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다. 하루는 진짜 도망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주머니에 10위안을 챙겨서 가방을 작게 매고 뛰기 시작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뿐이라 금세 추격당했다. 5리 정도 갔는데 오토바이에 탄 남편과 시동생이 나를 추격해서 붙잡았다. 나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고 오토바이 뒤에 죽은 짐승을 실어 나르듯 그렇게 실려서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나는 남편에게 북한 집 가고 싶다고 손바닥에 그림을 그리면

서, 울면서 말했지만 그 집 사람들은 내 손바닥에 숫자 14,000을 그렸다. 자기들이 나를 그만큼 돈을 주고 샀으니 가려면 이 돈을 내놓고 가라는 것이다.

두 번 도망칠 기회를 놓쳤으니 나에 대한 경계심, 감시는 매우 극심해졌다. 여러 시도가 실패하면서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탈출할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의 꿈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네에 팔려온 다른 북한 여성 중 한 명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 친구는 중국에 아는 북한 사람들이 몇 있고 연락이 되는 친구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 외에 17세 아이도 탈출하겠다고 해서 함께 탈출하기로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마침 설 명절이 되었다. 북한 여성들끼리 같이 방에 모여서 평소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차로 1시간 너머 달렸는데 마을에 남아있던 주선해준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온 동네가 뒤집히고 오토바이 행렬이 우리 찾는다고 난리도 아니라고 했다. 다행히 우리는 추격을 뿌리치고 인근의 큰 도시까지 내달렸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은 조선족하고 북한 분인데 이분들도 브로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정이 있는 분이였다. 함께 탈출했던 17세 아이는 다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시집을 가고 나는 그냥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남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연고 없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 북한, 정치범수용소·강제노동 폐지 유엔 권고 사실상 거부



〈한대성(왼쪽에서 네번째)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가 별정례인권검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5월 9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받은 북한이 총 262개 권고 중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폐지 등 63개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14일 채택된 UPR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따르면 북한은 독일, 네덜란드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동의 폐지 등의 권고에 대해 '주목하겠다'(note)는 입장을 밝혔다.

'받아들인다'(accept)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이는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북한은 또 성분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등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9일 UPR에서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 및 성분에 따른 차별도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런 권고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상

황이다.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수용소 비판에 대해 "적대 세력이 보내는 간첩과 테러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단지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 인권 관련 협약의 가입 및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유엔 인권 기구와의 지속적인 대화 등 199개 권고에 대해서는 9월 인권이사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4년 UPR에서는 268개 권고 중 83개를 거부했고 185개 권고는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힌 뒤 인권이사회에서 113개 권고 사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북한은 2009년, 20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심의를 받았다. (참고: 연합뉴스, 5. 14)

+ 북한,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5월 9일 미사일 발사 모습.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 240mm 방사포와 300mm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데 이어 9일 평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은 사실상 '탄도 미사일'로 결론 내렸다. 특히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KN-02'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KN-02처럼 고도가 40~50km로 낮아지면서도 사거리는 기존 200km대에서 400km대로 늘어난 게 특징이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금지된 사항이다.

특히 군은 이번 미사일의 궤적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낙하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고급 유

도기술을 북한이 개발해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첨단 유도무기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 우리 군의 현재 미사일요격시스템으로는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수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0일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나는 그것이 신뢰 위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아주 표준적인 것들(very standard stuff)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각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북한이 저장도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 미국, 북한 화물선 대북 제재 위반으로 압류 조치… 북한 반발

미국 법무부는 5월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이 선박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과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이중 등록된 선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2만5천가량을 실은 이 배가 지난해 4월 1일께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선박을 인도네시아로부터 넘겨받아 압류했으며 11일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5월 14일 "불법무도한 강탈 행위"라며 즉각 해당 화물선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의 이번 처사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며 "새로운 조미관

계수립을 공약한 6·12조미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비교적 높은 형식으로 대미 비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는 건조된 지 30년이 된 1만7천t급 선박이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총 길이 176.6m, 폭 26m에 최대 2만7천881t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선이다. 크기나 운송 능력 모두 북한 내에서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주력 상선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을 비롯한 광물의 운반에 사용되면서, 대북 제재로 광물 수출길이 막히기 전까지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불거진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사건은 앞으로 북미간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참고: 연합뉴스, 5.14)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 (BBC)〉

+ 탈북자 7명 中 라오닝성 구금 중… HRW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성명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7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5월 14일 여성 3명, 남성 3명 등 어른 6명과 10세 여아 1명 등 탈북민 7명이 지난 4월 28일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북송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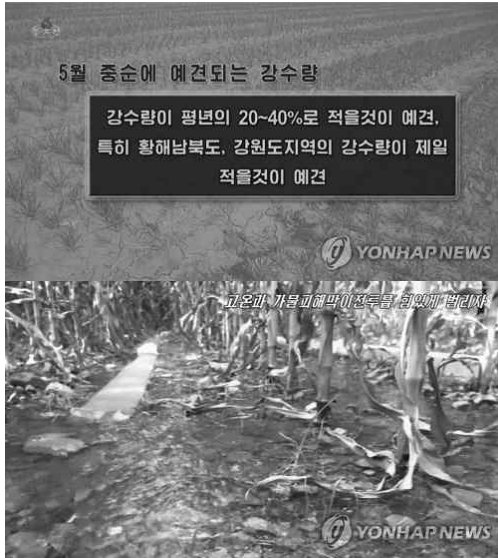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들이 북송되면 고문, 수용소 수감, 강제노동 등에 처해질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고 망명이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공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재 구금 중인) 7명의 탈북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평양에 더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198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국으로 북한의 억압을 피해 중국으로 온 탈북민들은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따라 이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7명의 탈북민들은 현재 중국 랴오닝 지역에 억류 중이라며, 이들이 강제북송될 수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서 탈북민 7명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확산시키고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등 중국 베이징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 당국에 이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WFP 사무총장 "北 식량상황 매우 우려"... 北신문 "가뭄으로 발작물 이미 피해...혁명적 대책 세워야"



〈강수량 부족과 각지의 농작물이 피해 상황을 전하는 조선중앙 TV 보도 (연합뉴스)〉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5월 1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면담 및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14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WFP와 FAO는 최근 공동 조사·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이라며 136만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이번 북한 작황조사와 관련해 "북한 관료들은 우리에게 (현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권을 줬다"고 강조하고 이어 북한의 식

량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어떤 지원도 공여국들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WFP에 공여한다면, 자신들은 지원물품 분배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파악할 모니터링 역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WFP는 주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영양강화 식품 제공 등을 통한 대북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5월 17일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지원,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유엔 식량계획(WFP)과 유엔 아동기금(UNICEF)에 자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발작물이 이미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펼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가물(가뭄)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제목의 기사에서 "4월 비가 적게 내린 일부 도, 시, 군들의 많은 포전(밭)에서 밀, 보리잎이 마르고 있으며 강냉이(옥수수) 포기도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TV도 지난 11일 "1월부터 5월까지 기간에 전국 평균강수량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은 기록으로 될 것"이라며 봄 가뭄대책 마련을 독려했다.

+ 유엔 제재면제 승인받은 대북지원 단체들 북한 방문



〈평양의 한 보육원에서 퍼스트스텝스가 제공한 콩우유를 마시고 있는 아이들〉

대북 식량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유엔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국제 구호단체들의 방북이 활발하다.

지난 3월 유엔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캐나다의 민간 대북지원 단체인 ‘퍼스트스텝스’는 북한을 방문해 콩우유 생산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평양 형제산구역의 해당 어린이집 등을 찾아 콩우유 배급실태를 확인했으며, 북한 강원도 통천군 로상리 제1어린이집에서는 “콩우유를 먹고

나서 아이들의 피부가 좋아졌다”는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퍼스트스텝스는 지난 13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에게, 식품에 첨가해 섭취하는 복합 미량영양소인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으며, 콩우유 생산 시설과 원료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 구호단체인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도 지난 3월 유엔으로부터 식수필터, 즉 여과장치와 위생용품 키트 등 10여 가지 종류의 대북물품 반입 계획을 제재 면제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 단체는 구호 물품은 물론 북한의 결핵 및 간

염 환자들을 위한 고기 통조림도 해마다 꾸준히 만들어 보내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16만2천여 개의 고기 통조림을 북한으로 들여보냈으며 올해도 수 차례에 걸쳐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고기 통조림을 만들어 북한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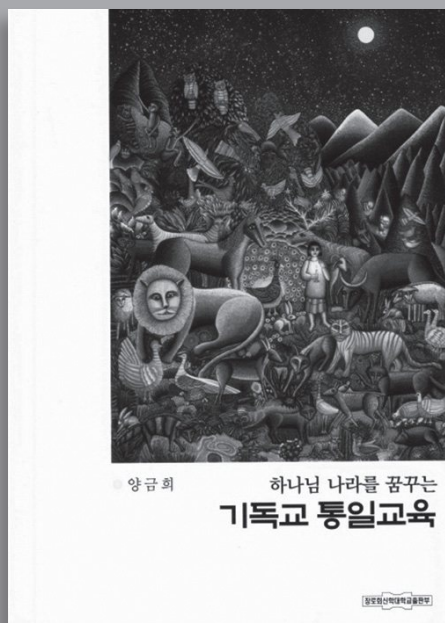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최근 자체 소식지를 통해 북한 방문 활동을 소개했다. 이 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가 제재면제를 승인한 날인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동안 북한을 방문했다. 이 단체 방문단은 북한 전역에 있는 27개 결핵 및 간염 치료소를 찾아 환자 600여명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지고 간 지원물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으로의 의약품 반입이 늦어지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여럿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이번 방북 기간 북한의 부족한 식량 상황을 접했다고 전했다. 지방에 있는 치료소와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가는 곳마다 바닥 드러낸 하천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엔은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지원사업은 대북제재의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는 인도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위는 심사를 통해 대북 물자 반입을 가능하게 하는 6개월 시한의 예외 승인을 내주고 있다.

다만 제재 면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도적 사업에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고: RFA, 5.14 / 연합뉴스 5. 15)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통일교육

저자: 양금희

발행일: 2018년 3월 1일

출판사: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가격: 16,000원

이번 북한개발소식의 주제는 기독교 통일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다음 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원칙과 사례, 그리고 비전에 대해 나누었지만 실제 교회에서 시행에 옮기는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적으로 각 교회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통일 교육을 실제로 해나가는데 있어서 지침서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발견한 책, 장신대 양금희 교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통일교육’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이번 북한개발소식에서 다룬 통일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실제 목회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통일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 즉 통일 전후 동독

교회의 교육을 분석해본다. 이어서 남과 북의 교육이념과 가치관 비교를 통해 우리가 실제 교육하고 보살펴야 할 청소년들의 특징을 생각해보고 단순히 제도의 통일을 넘어 사람의 통일로 나아가는 통일로의 성경적인 접근을 모색한다.

뒷부분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고민해본다. 목회적 측면에서의 고민, 또 실제적인 통일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서의 고민, 그리고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통한 통일 교육 모델 등 교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은 먼저 통일 교육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통일교육은 ‘기독교’ 교육이기에 우리의 교육 방향은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고 하는 궁극적

인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통일 교육은 정치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닌 통일 이전에 이미 시작되어야 하고 통일 이후에도 통일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노력으로써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기독교 통일교육을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현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확신으로부터 시작한다... 통일을 단순히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로 되는 정치적 통일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그 이후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질 사회적 통합과 사람의 통합과정, 더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해를 획득하도록 한다.” (저자 서문)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기독교 통일교육을 단순히 청소년들을 비롯한 자라나는 세대만이 아닌 교회 전반에 이루어져야 할 교육임을 강조한다. 즉 통일 목회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통일이 여러 교육 과제 중 하나가 아닌, 우리가 시대적으로 맞닥뜨린 필수적인 과제이자 도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통일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교육자들에게 통일교육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이다. 이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독자들이 ‘기독교 통일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주변적 주제가 아니라 핵심적 주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든 기독교교육자들에게 결코 빗겨갈 수 없는 사명이고 도전이라는 사실과 마주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마주한 이상 실천으로 옮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 서문)

기독교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에서 활용할만한 자료와 연구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통일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통일 교육에 관심과 열정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고민하는 분들께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미국간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지 않고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핵이 동결이나 비확산이 아닌 확실한 포기와 폐기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한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을 실제로 살아내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혼란한 세대를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한반도의 영적 리더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일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다음 세대를 통일의 리더로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 교육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할 기성세대야말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 통일관이 시급합니다. 그간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 등 세상의 관점에 따라 통일과 북한을 바라봐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바탕을 둔 통일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거짓말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소망으로 삼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 속에 선교사님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3국에서 심각한 박해와 활동제한 및 추방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포들을 위해 복음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극복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추방당하셨거나 사역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어 처형당하거나 수용소 수감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신앙인이었다는 이유로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된 수 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성도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또한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인권 탄압이 중단되고,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6.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제재로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특히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도 계속된 북한 정권의 위협 뿐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을 돕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신앙에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5월 1일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국내 사역자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방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회계 및 프로젝트 담당 (전임)	선교 관련 연구원 (전임 또는 파트)
모집인원	- 0명	- 0명
주요업무	- 일반회계업무 - 선교 관련 프로젝트 관리 (예산 및 집행 관련 실무)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 선교 현장 관련 연구과제 및 관련 사무업무 수행
지원자격	- 회계 관련 전공자 혹은 경력자 - 영어 업무 가능자 (해외본부 기준에 따른 업무간 영어사용 필수)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및 관련 학문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외국계 기업 등 영어사용 업무 환경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연구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사역조건	- 4대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 전임: 4대 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 파트: 근무시간 및 급여 협의
공통사항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공지사항 게시판))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현장 선교사(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배정(개별 협의)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 참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된 자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이제나 간사: 010-4668-6356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을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